

碩士學位論文

# 주디 무디, 세상을 구하다!

(Judy Moody Saves the World! · 論文翻譯)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韓英科

申恩娘

2008年 2月

# 주디 무디, 세상을 구하다!

(Judy Moody Saves the World! · 論文翻譯)

指導教授 金 元 寶

申 恩 娘

이 論文을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8年 2月

申恩娘의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인)

委 員 \_\_\_\_\_ (인)

委 員 \_\_\_\_\_ (인)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2008年 2月

# Judy Moody Saves the World!

Eun-Nang Shin  
(Supervised by Professor Won-Bo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2008.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Korean-English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Get into the Judy Moody Mood! Meet Judy Moody, her little "brother" Stink, her best friend Rocky and her "pest" friend Frank Pearl. Judy has a mood for every occasion—bad moods, good moods, even strange moods. But she has such fun trying to save the world all together with her classmates.

Where would the world be without Judy Moody?

Judy's learning about the environment in class. When she hears about the threats to the rain forest and endangered species—not to mention her own family's poor recycling habits—Judy's soon in the mood to whip the planet into shape. She decides that her class needs a way to replace the trees they destroy for pencils. One bottle drive later and they've raised enough money to plant a hundred trees and won the *Giraffe* award—for sticking their necks out for a good cause! I'm sure that all of them put you in a very Judy Moody mood!

## 저자 소개

메건 맥도날드는 '주디 무디' 시리즈로 상을 받은 작가이다. 그녀는 대부분의 '주디 무디' 이야기들이 그녀의 네 자매들이 함께 성장하면서 겪은 일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고백한다, "내가 주디 무디랍니다. 정말 똑같아요! 우리 자매들은 모두 정말 과장이 심하답니다. 주디 무디는 저예요... 정말 오버하는 걸 좋아하죠." 메건 맥도날드는 남편과 함께 캘리포니아 북부에 살고 있다.



리차드를 위해

좋은 이야기가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믿는

모든 도서관 사서들을 위해!



## 차 례

크레이지 스트립 반창고 콘테스트, . . . . .	1
바나나 껍질에 미치다, . . . . .	8
러비쉬 아저씨 따라하기, . . . . .	12
돼지발톱, 표범, 그리고 울퉁불퉁 등껍질, . . . . .	18
딱정벌레 비상사태, . . . . .	23
나쁜 녀석, . . . . .	27
달의 여신 2호, . . . . .	32
반창고의 박쥐들, . . . . .	38
작전명 '연필' . . . . .	43
빈 병에 미치다, . . . . .	49
웁크병에 걸리다, . . . . .	52

# 등 장 인 물

- 주디** 주인공. 쓰레기 연구가이며 기분이 자주 바뀜.
- 아빠** 주디의 아빠.  
열대우림지역에서 생산된 커피콩을 좋아함.
- 엄마** 주디의 엄마. 재활용에 대한 교육을 필요로 함.
- 스팅크** 주디의 남동생. 박쥐와 토디에 열광적임.
- 마우스** 주디의 고양이. 바나나를 좋아함.
- 라키** 주디의 가장 친한 친구. 세난도하 강에 사는 도룡뇽의 흔적에 관심이 많음.
- 토디** 두꺼비. 토디 오줌 클럽의 마스코트. 멸종위기에 있음.
- 토드 선생님** 주디의 학교 선생님. 3티반의 담임선생님.
- 프랭크** 우표 수집이 취미인 주디의 친구.  
원숭이 얼굴 홍합조개에 박식함.
- 제시카** 주디의 같은 반 친구.  
돼지를 아주 좋아하고 연필에 집착함

## 크레이지 스트립 반창고 콘테스트

주디 무디가 처음부터 세상을 구할 생각을 한 건 아니었다. 콘테스트에서 이기고 싶어서 시작했을 뿐이었다. 그것은 바로 반창고 대회였다.

주디는 딸깍 소리를 내며 구급함을 열었다. 크레이지 스트립 반창고 상자는 어디 있는 거지? 그녀는 반사 신경을 자극하기 위한 용도의 작은 망치를 꺼내 들었다.

“누나, 내가 그거 해봐도 돼?” 주디의 방으로 들어오며 스팅크가 말했다.

“스팅크, '똑똑' 노크하고 들어오라는 소리도 못 들었어?”

“알았어,” 스팅크가 말했다. “거기 누구세요?”

“농담하는 거 아니야,” 주디가 말했다. “동생이 누나 방에 들어오기 전에 해야 되는 거 말이야.”

“그럼 누나 말은, 내가 우스갯소리를 해야만 누나 방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스팅크가 말했다.

“아유, 됐어,” 주디가 말했다.

“뭐가 됐다는 말인데?” 스팅크가 물었다.

“스팅크! 침대 위에 앉거나 해, 다리를 꼬고 앉아야 해,” 주디가 말했다. “내가 이제 네 반사 신경을 실험해 볼 거야.”

“나한테 의사 선생님처럼 굴지 마!” 스팅크가 말했다.

“아무렇지도 앓을 거야, 스팅크.” 주디는 그 작은 망치로 스팅크의 무릎을 살짝 쳤다. 스팅크의 발이 앞으로 툭하고 나오면서 주디의 다리를 차버렸다.

“야, 스팅크,” 주디가 말했다. “네가 날 찼어! 네가 무슨 화식조라도 된다고 생각하니?”

“무슨 조라고?”

“화-식-조. 과학시간에 배웠어. 열대우림지역에 사는 새인데, 날지는 못해. 적이 공격하면 발로 차버리지.”

“난 화식조인지 뭔지 하는 건 아니야,” 스팅크가 말했다. “내 반사 신경이 좋을 뿐인걸 뭐.”

주디는 아나콘다같이 눈을 부라리며 스팅크를 노려보았다. “그래, 좋아,” 망치를 치우면서 그녀는 말했다.

스�팅크는 주디의 구급함으로 다가가서 크레이지 스트립 반창고를 몇 개 꺼냈다.

“스�팅크! 내 크레이지 스트립 반창고에 손대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몽땅 다 없어져서 상자가 텅 비었어. 내 물건에 계속 손대면, 팔걸이 붕대하고 다니게 만들겠다고 얘기 했잖니.”

스�팅크는 또 다시 팔걸이 붕대를 하고 다니고 싶지 않았다. 그것도 팔이 부러진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다.

“그거 이리 줘,” 주디가 스팅크에게서 상자를 빼앗으며 말했다. “난 반창고 콘테스트에 대해 읽어볼 거야.”

“무슨 콘테스트라고?” 스팅크가 물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주디가 상자위에 쓰인 안내문을 읽어 주었다.

**제 5회 크레이지 스트립 반창고 콘테스트**

**여러분만의 반창고를 디자인해 보세요.**

여러분만의 크레이지 스트립 반창고를 만들어 보세요.  
연필이나 크레용, 사인펜으로 그려 보세요.  
무엇을 그릴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롭게 만들어 보세요!  
아주 멋지게, 여러분만의 반창고를 만들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직접 그림을 그려서 크레이지 스트립 반창고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야?” 스틱크가 물었다. “어떤 상을 주는 거야?”  
주디가 계속 안내문을 읽어주었다.

13건의 우수한 디자인은 크레이지 스트립  
반창고에 직접 새겨질 것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국의 모든  
어린이들이 여러분이 디자인한 참신하고  
화려한 크레이지 스트립 반창고를  
붙이고 있는 모습을 말이죠.

“그게 전부야?” 스틱크가 물었다.

“이 정도면 굉장한 거야!” 주디가 말했다. “나, 주디 무디만의 크레이지 스트립 반창고를 만들고 말거야.”

“심사위원들이 꼭 누나한테 상을 줘야 하겠군,” 스틱크가 주디에게서 상자를

뉘아채면서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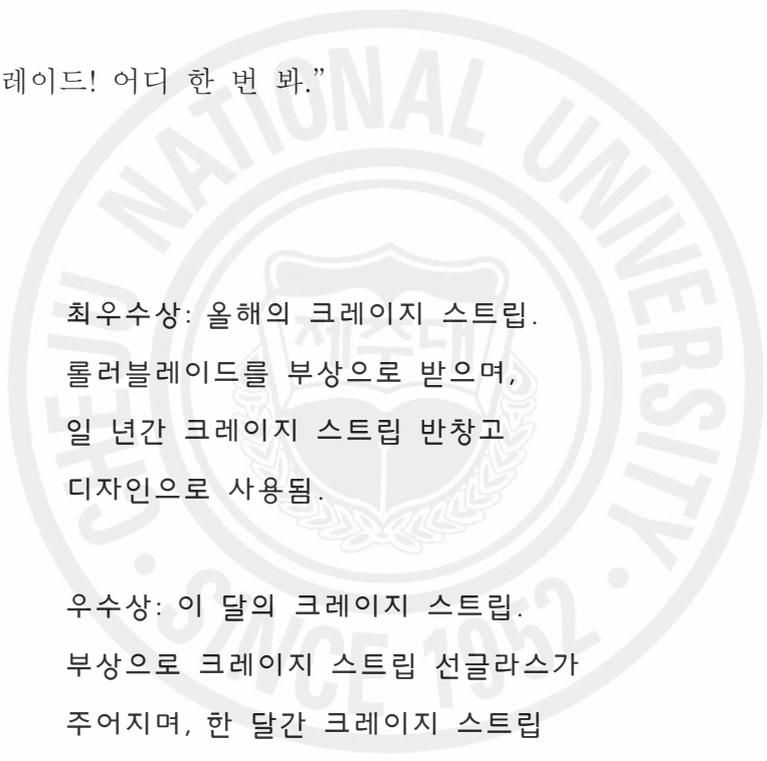
“한번 생각해봐.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무릎과 발목, 팔꿈치에 주디 무디표 반창고를 붙이고 있는 모습을 말아야. 최초의 여성 의사였던 엘리자베스 블랙웰조차도 자기가 직접 디자인한 반창고는 붙여보지 못했을 걸.”

“아이고, 누나,” 스팅크가 말했다. “누나가 너무 유명해지기 전에 말야, 누나 사인펜 내가 좀 쓰면 안 될까?”

“어디 쓰려고?” 주디가 물었다.

“나도 크레이지 스트립 반창고 그려 보려고. 여기 보니깐 일등상품이 롤러블레이드래.”

“롤러블레이드! 어디 한 번 봐.”



최우수상: 올해의 크레이지 스트립.  
롤러블레이드를 부상으로 받으며,  
일 년간 크레이지 스트립 반창고  
디자인으로 사용됨.

우수상: 이 달의 크레이지 스트립.  
부상으로 크레이지 스트립 선글라스가  
주어지며, 한 달간 크레이지 스트립  
반창고 디자인으로 사용됨.

모든 참가자에게는 참가에 대한  
감사인사가 담긴 대회참가증명서가 배부됨.

“해보는 거야, 스팅크. 미합중국 전체에서 오직 한 아이만이 롤러블레이드를 탈 수 있어.”

“그래서?”

“그러니깐, 작년에 상을 탄 아이들을 한 번 봐봐. 개네들은 이제 10살, 11살이야. 13살이나 되는 아이도 한 명 있어. 다들 십대들이란 얘기지. 넌 이제 겨우 일곱 살이잖아.”

“일곱 살 하고도 3개월 더 먹었어,” 스팅크가 말했다.

“네가 그런 반창고 디자인이 뽑히려면 피카소처럼 잘 그려야 할 거야,” 주디가 말했다.

“그게 누구데?”

“있잖아, 사람들을 온통 파란색으로 그려놓은 화가야.”

“그럼 나한테 파란색 사인펜 빌려줘,” 스팅크가 말했다.

주디는 방바닥에다 갖고 있는 사인펜과 크레용, 색연필, 파스텔을 모두 다 쏟아 놓았다. 스팅크는 파란 사인펜을 딱 보고선 움켜잡더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뭐 그리는 거야?”

“박쥐야,” 스팅크가 말했다. “파란색 박쥐야.”

“너 미쳤구나,” 주디가 말했다. “사람들은 박쥐 안 좋아해.”

“그래도, 박쥐는 수백만 마리의 벌레를 먹어치운다고,” 스팅크가 말했다. “사람들은 박쥐를 좋아해야 해.”

“그래 그건 알겠어,” 주디가 말했다. “내 말은, 박쥐 그림을 그리면 다른 십대 아이들을 이기지 못할 거라는 얘기야.”

그래도 스팅크는 듣는 등 마는 등 박쥐 색칠에만 열심이었다.

“네가 그린 박쥐는 확실히 귀가 너무 큰 것 같아,” 주디가 말했다.

“버지니아 산 큰 귀 박쥐라서 그래.”

“아, 그렇구나,” 주디가 말했다.

스�팅크는 그림을 잘 그린다. 그래도 주디는 스팅크가 자신을 천재나 천재급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했다. 그녀는 피카소처럼 기발한 아이

디어를 생각해 내야만 했다. 재미없이 낡아빠진 박쥐보다 더 좋은 것 말이다. 그리고 다른 10대들보다 멋진 무엇인가를. 그녀는 자신이 직접 만든 주디 무디 표 크레이지 스트립 반창고가 미국 전역에 퍼지기를 바랐다. 전 세계, 전 우주에까지.

“스틱크, 킁킁 소리 좀 내지마,” 주디가 말했다.

“사인펜 때문이야.”

“그 킁킁 소리 때문에 도대체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 주디가 말했다.

주디는 상자 겉면에 나와 있는 작년 우승자들의 작품을 죽 훑어보았다. 무당 벌레나 꽃, 축구공, 무지개도 있었고, 평화를 나타내는 표시도 있었다.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움을 나타내는 것들이었다. 주디는 자신의 크레이지 스트립 반창고에 그럴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려 애썼다.

그녀는 미소 짓는 얼굴을 그려보았다.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보라색으로도 그려보았다. 그 밑에다가, 그녀는 ‘크레이지 스틱크 반창고를 붙이면 기분이 좋아져요’라고 썼다.

“누구든지 미소 짓는 얼굴은 떠올릴 것 같아,” 스틱크가 말했다.

“누구 말이야?” 주디가 물었다.

“우리 반의 헤더 스트롱도 그렇고, 다른 10대 아이들도 그럴 것 같아.”

스틱크 말이 맞다. 미소 짓는 얼굴이 수백만 명의 발목에 붙여져 있는 것은 그리 뛰어난 아이디어가 아닌 것 같다. 또, 미소 짓는 얼굴정도로는 롤러블레이드 상품을 타기도 힘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피카소의 작품들처럼 기발한 면도 전혀 없지 않은가.

주디는 자신이 그린 크레이지 스트립 반창고 그림을 뒤집어 보았다. 웃는 얼굴이 기분 안 좋은 표정으로 보였다.

“이런 심술궂은 표정의 크레이지 스트립 반창고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스틱크가 말했다.

“으휴!” 주디가 말했다.

“하지만 거기에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스틱크가 말했다. “하지만 난 박쥐에 대해 떠오르는 말이 없어.”

“‘반창고 박쥐들’ 이건 어때?”

“그거 좋은데!” 스틱크가 말했다. “고마워!”

스티크는 이미 자기가 그린 반창고 그림을 다 완성했는데, 주디는 여전히 아이디어가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 어떤 영감도 떠오르지 않았다.

“좋았어, 이거 부치러 가자,” 스틱크가 말했다.

신선한 공기! 그래 바로 그거야! 주디의 머리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려 할 때면 흔히 그렇듯이 신선한 공기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았다.

우체통으로 가는 길에 스틱크가 물었다, “나 있지, 상 탈 수 있을까?”

“내가 뭐 수정 구슬인줄 아니?” 주디가 말했다.

“발표까지 얼마나 걸릴까?” 커다란 파란색 우체통 안으로 봉투를 집어넣으면서 스틱크가 물었다.

“금방은 안 될 거야,” 주디가 말했다.

집에 오는 길에, 주디는 신선한 공기를 잔뜩 들이마셨다.

“누나 꼭 변기 안에 있는 금붕어 같아,” 스틱크가 말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신선한 공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다가 졸지에 화장실 금붕어가 되어버렸다.

스티크는 자신의 반창고 디자인을 이미 부쳤다. 스틱크가 대회에서 일 등을 하면 어떻게 하지? 주디에게 아이디어가 하나도 안 떠오르면 어찌지?

주디 무디, 그녀는 우울해졌다.

## 바나나 껍질에 미치다

토요일 하루 종일 그리고 일요일도 온 종일, 주디에겐 크레이지 스트립 반창고에 넣어서 상을 받을 만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하나도 떠오르질 않았다. 월요일 아침, 버스 정류장에 도착 하자마자, 주디는 가장 친한 친구인 라키에게 그 콘테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도록 좀 도와줘!”

“좋아,” 라키가 말했다. “투명 반창고는 어떨까? 그것을 팔에 붙이고 있다고 생각해 봐. 정말 투명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말야.”

“특이하네!” 주디가 말했다. “투명 크레이지 스트립 반창고라! 좋은 생각이야!”

“심사위원들이 거들떠도 안보면, 어떻게 콘테스트에서 우승할 거야?” 스타크가 물었다.

“그래, 그 말도 맞아,” 잠시 더 생각을 해 보다가, 주디가 말했다. “온 세상이 일등상을 받은 주디 무디표 크레이지 스트립 반창고를 알아 줬으면 좋겠어.”



학교에서 주디는 프랭크 켈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는데 수업종이 울려버렸다. 그녀는 소란을 피우면 받게 되는 흰색의

경고 카드를 이번에 또 받게 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세 장의 흰색 경고 카드를 받아서, 방과 후에 남아 토드 선생님과 어항을 청소해야 했던 적이 한번 있었다. 오로지 인간만이 그렇게 냄새나는 어항을 닦을 수 있다고나 할까.

그래서 그녀는 말로 하는 대신, 프랭크에게 건네주기 위해 콘테스트에 대한 쪽지를 썼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추신: 제시카 핀치에게 이거 보여주지 마.’라고 적었다.

“자, 여러분! 과학시간이에요,” 토드 선생님이 말했다. “환경에 대해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우리 토론해 보도록 해요. 지구상의 열대우림이 베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약을 먹거나 공을 튀기고, 또 풍선을 터뜨릴 때, 여러분들은 열대우림에 있는 나무로 만든 것을 사용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무가 있을 자리에 쇼핑몰이 만들어지고 있고, 동물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를 모아둘 장소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봐요. 때로는 작은 것에서부터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식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생각 없어요?”

“전등을 켜놓은 채로 놔두지 않는 거요,” 헤일리가 말했다.

“숙제노트를 재활용하는 거요,” 프랭크가 말했다.

“그거 말고도 캔이나 병 같은 것도 재활용할 수 있어요,” 레오가 말했다.

“음식쓰레기를 흙으로 만드는 거요,” 라키가 말했다.

“그래요,” 토드 선생님이 말했다. “그렇게 해서 퇴비가 만들어져요.”

주디가 손을 들면서 쪽지를 살짝 건드리는 통에 쪽지는 그만 바닥에 떨어져 버렸다. “나무를 심는 거요!”

“너나 쓰레기 버리지 마,” 제시카 핀치가 말했다.

“나 쓰레기 버린 거 아냐,” 주디는 그렇게 말하면서 쪽지를 주웠다. 그녀는 제시카의 이름에서 핀치라는 철자위에 줄을 죽 긋고는 그것을 ‘밀고자’라는 단

어로 바뀌 적었다. 쳇! 때로 ‘밀고자 제시카 핀치’때문에 그녀는 신경질이 났다.

“아주 좋아요!” 토드 선생님이 말했다. “모두 다 좋은 생각이에요. 과학시간 뿐만 아니라 집이나 학교, 운동장에서 여러분 주위를 둘러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지구를 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주위의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각자 자신의 맡은 역할만 하면 돼요. 즉,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죠.”

한 사람이라고! 정말 한 사람만 있어서 된다면, 그럼 주디 무디, 그녀가 세상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녀는 이제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게 되었다. 바로 바나나 껍질에서부터였다.

그날 오후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주디는 라키에게 물었다, “라키야, 우리 집에 가서 바나나 같이 먹을래?”

“좋아,” 라키가 말했다. “근데 왜?”

“퇴비 만들려고,” 주디가 말했다.

“그럼, 나 두 개 먹을래!” 라키가 말했다.

주디의 집 부엌에서, 주디와 라키는 각각 바나나를 한 개 반씩 먹었다. 그들은 네 번째이자 마지막 바나나를 주디의 고양이, 마우스에게 먹였다. 그리고 나서, 주디는 바나나 껍질 네 개를 모두 양동이에 던져 넣었다.

“우리 양동이에다가 ‘음식물 쓰레기가 흙으로 변해요’라고 쓰면 어떨까?” 라키가 말했다.

“좋았어!” 주디가 말했다. “내일 토드 선생님께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치료하는 일을 시작했는지 말씀드리자.”

“아주 멋진 생각이야,” 라키가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봐,” 주디가 말했다. “왜 내가 전에는 그 생각을 못했지? ‘세상을 치유한다!’ 바로 그거야!”

“뭐가 그거야?”

“내 반창고 말이야. 크레이지 스트립 반창고 콘테스트에 출품할 거 말이야! 두고 봐.” 주디는 위층으로 달려 올라가서는 사인펜과 종이를 들고 내려왔다. 부엌 식탁에서, 라키는 퇴비용 양동이에 붙일 종이를 잘랐고, 주디는 그 위에다 반창고를 그리고 나서, 지구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다. 그녀는 지구 밑에 ‘세상을 치유하다’라고 최대한 또박또박 썼다. 그리고 그녀는 지구 그림 주위에 바나나 껍질을 그려 넣었다.

스팅크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뭐 그리고 있어?” 그가 주디에게 물었다.

“바나나 껍질,” 주디가 말했다.

“크레이지 스트립 반창고 그림 그리는 거야,” 라키가 말했다.

“그럼 박쥐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스틱크가 말했다. “그래도 박쥐가 바나나 껍질보다는 덜 이상해.”

그는 식탁위의 텅 빈 바구니를 쳐다보았다. “아니! 누가 한 개 남은 바나나를 먹어버린 거야?”

“마우스!” 주디가 말했다. 주디와 라키는 바닥에 뒹굴면서 깔깔거렸다.

“그럴 리가 없어,” 스틱크가 말했다.

“고양이 수염 좀 봐,” 주디가 말했다.

스팅크는 바닥에 엎드려서, 고양이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아이, 더럽게! 마우스 수염에 바나나 먹은 흔적이 묻어 있어.”

“말했잖아,” 주디가 말했다.

“형이랑 누나가 바나나 다 먹어버렸다고 엄마한테 이를 거야,” 스틱크가 말했다. “그리고 마우스한테도 하나 먹었다고 말이야.”

“과학숙제라고 엄마한테 말씀드려,” 주디가 말했다. “두고 봐, 지금부터 여기서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날 거야.”

“우리는 퇴비를 만들고 있어,” 라키가 말했다. “이것 좀 봐?” 그는 자기가 만든 문구를 들어보였다.

“음식 쓰레기가 다 썩는 데는 백 년도 더 걸릴 걸,” 스틱크가 말했다.

“스팅크, 네가 바로 암적인 존재가 될 거야. 나무나 나뭇잎처럼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으면 말이지.”

## 러비쉬 아저씨 따라하기

다음날 아침, 주디가 일찍 잠에서 깬 때, 밖은 여전히 어두컴컴했다. 그녀는 손전등과 노트를 찾아서 발끝으로 살금살금 부엌이 있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세상을 구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침식사 전에 세상을 구했으면 하고 바랐다. 주디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도 조용히 그리고 어둠속에서 그 일을 해야만 했는지 궁금해졌다. 하지만, 그래야 부모님이 깨지 않을 것이다.

주디 무디, 그녀는 러비쉬 아저씨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러비쉬 아저씨는 스텝크가 읽는 만화책에 나오는 착한 꼬마 쓰레기 괴물이다. 만화책에서 그는 감자칩 포장 상자와 빈병으로 그의 집을 만들었다. 그는 사탕 막대 같은 것 등의 모든 것을 재활용했다. 그리고 그는 열대우림에서 나온 것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음... 열대우림지역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라. 그 곳이 어찌면 좋은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고무는 열대우림의 나무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초콜릿과 향신료 그리고 향수와 같은 것도 그렇다. 껌조차도 그렇다.

주디는 집안구석에서 물건들을 골라내어 부엌 식탁위에 올려놓았다. 초콜릿, 아몬드 초콜릿, 바닐라 아이스크림. 주디 아버지의 커피 땅콩도 있었다. 고무가

붙어있는 화장실 청소용구. 동그랗게 생긴 껌이 나오는 스틱의 장난감에서 나온 껌도 있다. 엄마의 핸드백 안에서 나온 립스틱도 마찬가지다. 주디는 열대 우림을 구하는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가족들이 부엌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도대체 이게 다 뭐라니...?” 엄마가 말했다.

“주디, 어두운데서 왜 그러고 있니?” 불을 켜면서 아빠가 물었다.

“뭐야, 껌 나오는 내 장난감!” 스틱크가 말했다.

주디는 팔을 뻗어 다가오지 못하게 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것들 모두 열대우림의 나무로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녀가 모두에게 말했다.

“누가 그랬는데?” 스틱크가 물었다.

“러비쉬 아저씨가 그랬어. 그리고 토트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사람들은 커피 나무를 재배하기 위해서, 또한 화장품과 껌을 만들기 위해 너무나 많은 나무를 베어내고 있어. 토트 선생님은 지구가 우리가 사는 집이라고 하셨어. 우리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 우리에게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없어도 돼.”

“나에겐 껌이 필요해!” 스틱크가 소리 질렀다. “내 껌 도로 내놔!”

“스틱크! 소리 지르지 마. 너 소음공해에 대해 들어본 적 없어?”

“내 커피도 거기 있니?” 머리를 긁적이면서 아빠가 물었다.

“주디? 저거 아이스크림이니? 식탁에 몽땅 흘러내리겠다!” 엄마가 녹아서 물이 푹푹 흐르는 아이스크림 포장을 싱크대로 옮겨놓았다.

“드드드드-드드드드드!” 주디가 나무를 베어내는 전기톱 소리를 냈다.

“누나 머리가 어떻게 됐나봐,” 스틱크가 말했다.

아빠는 아몬드 초콜릿을 다시 찬장에 집어넣었다. 엄마는 화장실 청소용구를 부엌 식탁에서 치워서 욕실로 가지고 갔다.

다음 계획을 시작할 시간이다. 작전명은 ‘재활용’. 주디 무디, 그녀는 가족들에게 그들이 우리 지구에 얼마나 많이 상처를 입히고 있는지 보여주게 될 것이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버리는 매 순간마다, 그녀는 그것을 기록할 것이다. 그

너는 공책을 집어 들고는 쓰레기통 안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적어 내려갔다.

오렌지 주스 캔 한개  
땅콩버터 깡통 딱깅 한개  
빵 포장용 비닐 봉투 한개  
달걀 껍데기 네 개  
냄새나는 여겨운 찢은 커피 찌꺼기  
머핀을 싹뚫던 껍데기 세 개  
지저분해진 주홍색의 체리주스 상자 뚜개와 벌레!  
오트밀 죽 반 그릇

“스팅크! 끈적거리는 오래된 오트밀 죽을 쓰레기통에 버리면 어떡해!” 주디가 말했다.

“아빠! 누나한테 나 감시하는 거 하지 말라고 말해 주세요.”

“난 음식쓰레기 형사야!” 주디가 말했다. “자고로 쓰레기 연구자라고 할 수 있지. 토드 선생님이 그러셨어. 어떤 것을 재활용해야 할지를 알려면,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봐야 한다고 말이야.”

“자, 그럼,” 스팅크가 뭔가 축축하고 흐물흐물한 것을 주디의 코에 들이밀면서 말했다. “내가 먹다 버린 사과 속도 알아봐야겠네.”

“푸-하-하,” 주디가 말했다. 우리 가족들 중에서 세 가지 해야 하는 일에 누구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세 가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아빠가 물었다.

“재사용, 재활용.”

“세 번째는 뭐야?” 스팅크가 물었다.

“쓰레기를 이리저리 버리는 것을 그만둘 때까지, 꼬마 남동생 녀석이랑 말하지 않는 거야.”

“엄마! 누나가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하고 있어. 그 때문에라도 난 쓰레기 계속 버릴 거야.”

“우리가 버린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봐!” 주디가 말했다. “한 사람이 하루에 8파운드이상의 쓰레기를 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우리는 유리랑 캔을 모두 재활용하고 있어.” 엄마가 말했다.

“그리고 신문도 그렇고,” 아빠가 말했다.

“하지만 이걸 보세요?” 쓰레기통에서 비닐봉지 한 개를 꺼내면서 주디가 말했다. “이 빵 봉지는 지갑이 될 수도 있었어! 아니면 도서관에서 책을 담을 수도 있었고 말이야.”

“달걀 껍데기는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스팅크가 물었다. “그리고 냄새나는 오래된 커피가루는 어땠고?”

“그것은 식물에게 주는 비료로 사용할 수 있어. 아니면 퇴비로 만들든가.” 바로 그때, 쓰레기통 안에 있는 무언가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한 무더기의 얼음사탕 막대들인가? 주디는 그것을 끄집어냈다. “여러분! 내가 이 학년 때 만들었던 로라 잉겔스 와일더 통나무집이야!”

“나한테는 풀만 잔뜩 붙여놓은 것 같은데,” 스팅크가 말했다.

“미안하다, 주디야,” 엄마가 말했다. “먼저 물어봤어야 했는데.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안 버리고 둘 순 없잖니, 딸아.”

“그것을 재활용해!” 스팅크가 말했다. “불을 붙일 때 사용하면 되겠다, 불쏘시개로 말이야! 아니면 부러뜨려서 이쑤시개로 만들던지.”

“농담하지 마, 스팅크.”

“주디, 아직 학교 갈 준비도 되지 않았네. 이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자,” 아빠가 말했다. “자, 이제 옷 갈아입을 시간이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아무도 주디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올라갈 나무 없는 나무늘보 같은 기분이 들면서 주디는 위층으로 터벅터벅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네 기분이 좀 나아진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 립스틱을 바르지 않으나,” 엄마가 계단 밑에서 소리쳤다.

“그럼 나는 오늘 커피를 반잔만 마셔야겠다,” 아빠가 말했다. 하지만 주디는 열대우림에서 재배한 커피땅콩을 갈아대는 소리에 아빠의 목소리를 거의 듣지 못했다.

그녀의 가족들은 아주 완벽하게 러비쉬 아저씨 같은 이 훌륭한 기분을 어떻게 망쳐놓을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 그녀는 청바지와, 점무늬가 있는 올빼미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었다. 그리고 물을 절약하기 위해, 그녀는 양치질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족들 모두에게 화가 난 채로 쿵쾅거리면서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이거 네 점심 도시락이다,” 엄마가 말했다.

“엄마! 종이 가방에 넣으시면 어떻게 해요!”

“뭐가 잘못됐어?” 스틱크가 물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주디가 말했다. “종이 가방을 만들기 위해 나무가 베어지고 있다고요. 나무는 그늘을 제공하는데, 또 나무는 지구온난화를 막아 주거든요. 우리는 나무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나무는 산소를 만들고, 공기 중의 먼지나 그런 오염된 것들을 없애는데 도움을 준다니깐요.”

“먼지라고!” 엄마가 말했다. “먼지에 관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럼 네 방 청소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자꾸나.”

“엄~마!” 가족관계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엄마는 어떻게 나무를 살리는 것 같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거였다. 주디는 차고로 가서 유치원 다닐 때 쓰던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그려진 도시락 가방을 꺼내왔다.

“정말 그 애들 같은 도시락 가방을 들고 버스 탈거야? 아이들이 모두 다 쳐다볼 텐데?” 스틱크가 물었다.

“오늘은 자전거 타고 갈 거야,” 주디가 말했다.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거든.”

“그럼 학교에서 봐.” 스틱크가 그녀를 향해 그의 도시락이 든 종이가방을 흔들어 보이던 말했다. 그녀가 남동생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으면 좋으련만.

“계속 그런 식으로 나무를 무시해 봐,” 주디가 말했다. “그건 내 알 바가 아니니깐.”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았다.



## 돼지밭톱, 표범, 그리고 울통불통 등껍질

학교에서, 주디는 오전에 있었던 수학시간 내내 글씨가 엉망이었다. 철자법 시간에도 마찬가지였다. 마침내 과학 시간이 되었다.

“이 세상의 식물과 동물의 반 이상이 열대 우림지역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토드 선생님이 말했다. “그래서 열대우림지역을 보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전체의 건강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 하지만 바로 이곳 버지니아에도 멸종위기에 있는 동식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었나요?”

멸종위기에 있는 동식물들이라고! 바로 여기 버지니아에! 주디는 귀를 쫑긋거리며 귀담아 들었다.

“우리가 지구를 잘 돌보기를 원한다면 우리 뒤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여러분들 각각이 버지니아에 있는 멸종위기 동물을 알아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종에 대해서, 왜 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봐요.”

그런 동물을 찾아보라고! 그녀는 멸종위기에 있는 종을 도울 수 있었다. 주디 무디, 그녀는 버지니아 주 전체를 보호하는 것을 도울 수 있었다!

토드 선생님은 커피 캔을 흔들어 보였다. “이 안에 든 쪽지에는 각각 멸종위

기에 있는 동물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내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앞으로 나와서 이 캔에서 쪽지 하나씩을 뽑는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뽑고 싶어요?”

모든 아이들이 손을 들었다.

“라키.”

“세난도아 강 도롱뇽이다!” 라키가 그의 쪽지를 읽으면서 말했다.

“프랭크 펄!”

“원숭이 얼굴 홍합 조개예요!”

좋았어! 주디는 깃발을 흔들듯이 손을 마구 흔들었다. 토드 선생님은 그녀의 이름을 아직 부르지 않았다.

브래드는 흰머리 독수리를 골랐다. 헤일리는 표범을 뽑았다. 랜디는 바다 장수 거북이를 골랐다.

“제시카 핀치.”

“빛나는 돼지발톱,” 제시카가 말했다. “만세!”

주디는 돼지발톱을 뽑았으면 하는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제시카 핀치만이 그럴 것이다. 제시카 핀치는 돼지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아했다. 빛나는 돼지발톱조차도 말이다.

토드 선생님이 몇 사람 이름을 더 부르는 동안, 주디는 뒤돌아서 제시카에게 말했다, “빛나는 돼지발톱은 발톱에 매니큐어를 칠한 돼지라네!” 그녀는 킁킁거리고 웃었다.

“주디 무디.”

혼자서 손을 들고 있었던 주디는 돌아앉았다. “이제 한 장밖에 안 남았네,” 토드 선생님이 말했다. “자, 나와서 뽑으렴.”

마침내! 주디는 접혀있는 작은 종이쪽지를 펴보았다. “동북쪽 해변의 호랑이 딱정벌레,” 쪽지엔 그렇게 쓰여 있었다.

동북쪽 해변에 사는 호랑이 딱정벌레라고! 동북쪽 해변의 호랑이 딱정벌레는 동물도 아니잖아. 그건 곤충인데. 꼬물꼬물 기어 다니는 벌레잖아.

“자기 꺼 맘에 안 드는 사람, 바꿀까?” 주디가 물었다.

“여러분 서로 바꾸지 말고 자기 걸 갖고 있으세요,” 토드 선생님이 말했다.

“들어본 적도 없는 것이면요? 그리고 어떻게 생긴 것인지도 모른다면요?” 주디가 말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거잖아요,” 토드 선생님이 말했다. “알아보세요. 도서관에 가서든, 아니면 책이나 잡지를 들춰보든가 해서요. 아니면 컴퓨터실에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 목요일에는 박물관으로 현장학습을 갈 거예요. 거기 가면 여러분이 뽑은 동물들에 대한 정보가 있을 거예요.”

“큰 박물관이에요 아니면 작은 박물관이에요?” 프랭크가 물었다.

“작은 곳이에요,” 토드 선생님이 말했다. 아이들이 툭툭거렸다.

워싱턴에 있는 스미소니언 정도는 되어야 큰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다. 아니면 이 세상 비행기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던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작은 박물관은 길을 따라 죽 가다보면 있는 곳이다. 거기에는 장난감 기차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공룡들 그리고 버지니아 여기저기서 찍은 구닥다리 사진들이 있다.

“거기에서 제일 볼만한 것은 거미집이야,” 라키가 말했다.

목요일이 되었을 때, 주디는 호랑이 딱정벌레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뜻으로 호랑이 줄무늬가 들어간 바지를 입고 학교에 갔다. 박물관에서, 토드 선생님은 반 아이들에게 박물관에서 일하는 한 여자 분을 소개해 주었다. “이 분은 스팅클리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버지니아에 있는 멸종위기의 종에 대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스텅클리 선생님은 이상한 곤충처럼 생겼다. 신고 있는 갈색 양말이 꼭 곤충 다리처럼 보였다.

“나를 스테파니라고 부르세요,” 그 이상한 곤충 선생님이 말했다.

“애들아,” 토드 선생님이 말했다. “스테파니 선생님 말씀에 삼학년답게 조용히 귀를 기울여 봅시다.”

프랭크는 자신의 귀를 떼어내어 그것을 스테파니 선생님에게 주는 시늉을 했다. 주디는 킁킁거리면서 웃었다.

이상한 곤충처럼 생긴 스테파니 선생님은 ‘야생에는 살고 있지 않은 동식물들’ 코너로 아이들을 데려갔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실제로 살아있는 세난도아강 도롱뇽과 아주 끈적끈적하게 보이는 버지니아 산 달팽이, 그리고 판자에 붙어 있는 박제된 날다람쥐를 보여 주었다.

“날다람쥐다! ‘라키와 황소조개’에서처럼 이름이 라키예요? 프랭크가 물었다.

“그렇단다,” 별레 선생님이 말했다. “사실을 말하자면 그렇단다.”

“애 이름도 라키예요!” 라키를 가리키면서 프랭크가 말했다. “야, 라키, 라키는 다람쥐래요!”

“그리고 너는 황소조개고 말야!” 라키가 말했다. “너는 말코손바닥사슴이잖아! 안 그래!”

주디는 곤충 선생님에게 정말 질문을 하고 싶었다. 그녀는 짧은 코를 가진 철갑상어처럼 팔을 곧게 펴서 손을 들었다. 마침내 스테파니가 그녀를 지명했다.

“여기 동북쪽 해변에 사는 호랑이 딱정벌레도 있어요?” 주디가 물었다.

“아니, 유감스럽게도 그건 없단다,” 스테파니가 대답했다. “그 벌레는 버지니아에서 멸종위기에 있단다. 그리고 우리 박물관에 전시되면 참 좋겠구나.”

멸종위기 동식물 박물관이라면서 어떻게 동북쪽 해변의 호랑이 딱정벌레도 없을 수가 있을까?

“그럼 동굴에 사는 등각류는 있어요?” 알뜰게 아는 척 하는 제시카 핀치가 물었다.

“등각류가 뭐예요?” 라키가 물었다.

“등각류 동물은 쥐며느리와 같은 갑각류를 말하는 거란다,” 스테파니가 대답했다. “쥐며느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단다. 거미류 전시관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아이고! 이 ‘이’가 그 ‘이’란 말씀이세요!” 라키가 말했다.

주디는 왜 이 박물관에 동북부 해변에 서식하는 호랑이 무늬의 딱정벌레가 없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결국, 그들은 기어 돌아다니는 수많은 갑각류 동물들과, 이를 닮은 등각류들 그리고 쥐며느리처럼 생긴 곤충들을 관람했다.

주디는 다시 손을 들었다. 그녀는 제시카 펀치처럼 아주 똑똑해 보이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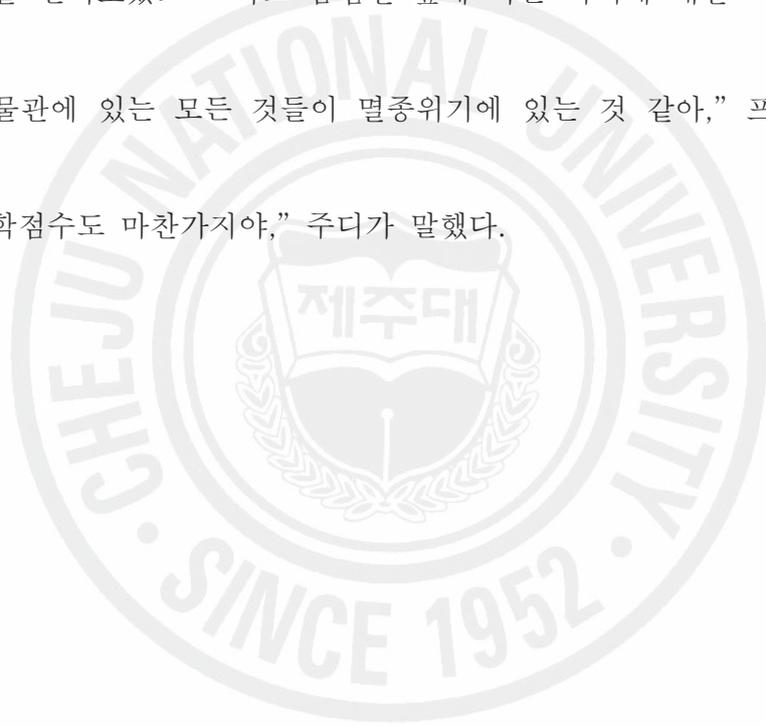
“실례지만,” 그녀가 말했다. “여기 발가락이 두 개 달린 나무늘보 있어요? 열대지방에 사는 빨매미는요? 야행성의 다람쥐원숭이는 있어요?”

“여기에는 열대우림지역에 서식하는 동물들은 없단다,” 곤충 선생님이 말했다. “하지만 좋은 생각이구나. 아마도 언젠가는 그런 것들도 전시할 수 있지 않을까.”

모두들 발이 주황색인, 뽀루지가 등에 난 듯이 울퉁불퉁한 진주 빛의 홍합조개 등껍질을 만져보았고 그리고 음침한 늪에 사는 마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 박물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멸종위기에 있는 것 같아,” 프랭크가 말했다.

“내 과학점수도 마찬가지로야,” 주디가 말했다.



## 딱정벌레 비상사태

바로 그 다음 날, 주디는 실제로 살아있는 동북쪽 해변에 사는 호랑이 딱정벌레를 찾아보기로 했다. 학교가기 전에, 그녀는 재활용 쓰레기통에서 땅콩버터 통을 꺼내들고는 뒤뜰로 달려갔다. 그녀는 나무껍질을 툭툭 두드리며 보았다. 그녀는 근질근질한 느낌이 드는 풀밭 위를 기어 다녔다. 그녀는 흙속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여기야, 딱정벌레야, 딱정벌레야,” 주디가 불렀다. “멸종되지 마.”

그녀는 단 한 마리의 딱정벌레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녀가 찾은 것이라곤 도토리 껍질과 민달팽이 그리고 재활용지로 만들어지지 않은 사탕포장지뿐이었다.

“주디!” 그녀의 아빠가 불렀다. “잠옷 바람으로 거기서 뭐 하는 거니?”

“동북쪽 해변에 사는 호랑이 딱정벌레를 찾고 있어요,” 주디가 말했다. “지금 멸종위기에 있는 거예요. 토드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멸종위기에 있는 종을 살리는 것을 뒤뜰에서부터 시작하라고 하셨어요.”

“아침도 먹기 전에 잠옷을 입은 채로는 안 될 걸,” 아빠가 말했다. “딱정벌레는 아직도 쿨쿨 잠자고 있을 거야.”

그날 학교에서, 주디는 그 딱정벌레 사진을 찾아냈다. 그리고 다른 몇 가지 사실들도 알아냈다. 그녀는 사진을 찾아보았고 곤충에 관한 책도 들춰보았다.

그녀는 컴퓨터로도 찾아보았다. 별로 운이 따라주지 않았다. 컴퓨터에서 찾아낸 대부분의 딱정벌레는 존 레논이나 폴 메카트니의 비틀즈였다.



다음날은 토요일이었다. 프랭크 펄이 주디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놀러가도 돼?”

“동북쪽 해변 호랑이 딱정벌레를 가지고 오지 않는 한 안 돼.”

“알았어,” 프랭크가 말했다.

“너 그거 찾았어?” 주디가 물었다.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사진 한 장을 찾았어. 너네 집에 우표 있어?” 프랭크가 물었다.

“우표가 무슨 상관이 있어?”

“우표가 있는지나 가서 한번 살펴봐. 벌레그림이 있는 우표 말이야.”

주디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부모님의 책상으로 달려가서 우표가 있나 찾아보았다.

“다 시시한 오래된 깃발우표들뿐이야,” 그녀가 프랭크에게 말했다.

“그럼, 나한테 우표가 엄청 많이 있거든, 그러니깐...”

“우표를 왜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우표를 수집하거든. 수집앨범에 우표를 붙이고 있는데 딱정벌레가 나와 있는 우표를 발견한 거야.”

“지금 바로 가지고 와,” 주디가 말했다. “너네 엄마한테는 급한 일이라고 하고 말이야.”

삼십 분 후, 프랭크가 현관문 초인종을 눌렀다. “드디어!” 주디가 그를 거실로 들어오게 하면서 말했다.

프랭크는 커피탁자에 그의 우표수집앨범을 올려놓고는 그것을 펼쳤다. 그는 곤충과 거미들이 있는 페이지를 펼쳐 놓았다. “이 딱정벌레들을 봐봐,” 그가 말했다. “저것은 무당벌레야. 개네들은 행운을 뜻해. 그리고 쇠똥구리도 있고, 큰 딱정벌레와 점무늬가 있는 물방개도 있어. 그리고 심지어는 검 붉은색의 긴 뿔

딱정벌레도 있어.”

“내 딱정벌레는 어느 거야?” 주디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프랭크는 외계생물처럼 보이는 반짝거리는 초록색 머리와 눈을 가진 딱정벌레를 가리켰다. 그 딱정벌레 밑에는 ‘신신텔라 도살리스 도살리스’라고 적혀 있었다.

“저것은 동북쪽 해변에 사는 호랑이 딱정벌레가 아니야,” 주디가 말했다. “그건 무슨 신데렐라 딱정벌레 같은 걸.”

“그것은 라틴어야,” 프랭크가 말했다.

“라틴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 딱정벌레는 없어?”

“그 밑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한번 읽어봐.”

동북쪽해변 호랑이 딱정벌레.

버지니아의 체사피크만 지역의 모래사장에서 발견됨.

서식지 환경변화, 인구증가, 해안지역 개발 및 침식으로 인해 멸종위기에 있음.

“이 딱정벌레는 해변에 사는구나! 우표가 많은 덕분에 찾아냈어, 고마워, 프랭크. 그럼 이제 나는 내 숙제를 할 수 있겠다. 일단, 맨 앞장에는 그림을 그릴 거야.”

“좀 도와줄까?” 프랭크가 물었다.

“좋아,” 주디가 말했다. “넌 사인펜 뚜껑을 다시 제자리에 끼우는 일을 맡아.”

주디는 걸표지 전체에 다리가 많이 달린 동북부 해변 호랑이 딱정벌레를 그렸다.

“개네들한테는 물어뜯는 주둥이 부분도 있어,” 프랭크가 말했다. “그리고 날

개도 있고.”

“아, 알았어,” 주디가 말했다.

“색칠하는 거 도와줄까?” 프랭크가 물었다.

“좋아, 고마워,” 주디가 말했다. “넌 원숭이 얼굴 홍합조개 리포트 앞표지 다 그렸어?”

“그럼,” 프랭크가 말했다. “그것은 흑이 여러 개 달린 조개껍질인데, 꼭 원숭이를 닮았어. 거짓말이 아니야. 네가 보면 눈이랑 귀랑 모든 것이 정말 비슷해.”

“나 그거 본 적 있어,” 주디가 말했다. 그녀는 대문자로 리포트의 제목을 써 내려갔다. **동북쪽해변 호랑이 딱정벌레 구하기.**

“아주 좋아!” 주디가 말했다.

“두 배로 멋지다,” 프랭크가 말했다.

그녀가 앞표지를 막 완성했을 때, 스타크가 방으로 들어와서 주디의 그림을 봤다. “왜 날아다니는 볼록한 축구공을 온통 그려 놓았어?”

## 나쁜 녀석

주디는 주말 내내 과학숙제를 했다. 월요일 과학시간에, 반 아이들은 각자 맡은 멸종위기 동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 주었다. 프랭크는 원숭이 얼굴 홍합조개에 어떻게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는지 반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제시카 핀치는 줄무늬가 있는 허쉬 초콜릿처럼 생긴 반짝거리는 돼지발톱 모양의 조개를 보여주었다. 주디는 동북쪽 해변에 사는 호랑이 딱정벌레의 중요성에 대해 으스대며 자랑했다.

“호랑이 딱정벌레는 죽은 나무를 재활용하고 정말 많은 해충을 먹어치워, 그러니깐 우리는 그 딱정벌레를 발로 밟으면 안 되는 거야. 또 이 딱정벌레는 호랑이처럼 매우 빠르고 신중해. 열대우림지역에 사는 이것과 사촌뻘인 딱정벌레는 큰 딱정벌레인데, 길이가 무려 6인치야! 호랑이무늬 딱정벌레는 이렇게 웅웅 거리는 큰소리를 내. 위이이이이잉! 자, 이상이야.”

아이들의 발표가 모두 끝났을 때, 토드 선생님은 말했다, “모두들 잘했어요! 이 특별한 생물종에 대해 설명을 잘 해줘서 여러분 모두에게 고마워요. 기억하세요, 만약 야생에서 이 동물들 중 하나를 발견한다면, 제자리에 가만히 놓아주세요. 원래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갑자기 주디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아이슈타인 급 아이디어이다! 비밀 클럽

모임을 소집할 때다. 그녀는 프랭크에게 쪽지를 건네주었다. ‘오늘 두꺼비 오줌 클럽의 긴급 모임이 있음! 이것을 라키에게 건네줘-주디 무디.’

제시카가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주디의 쪽지를 보려하였다. “내가 장담하는데 너 ‘멸종위기에 있는’이라는 단어 스펠링 모르지?” 제시카가 경멸조로 말했다.

“아니, 나 알아,” 주디가 말했다. “사-라-진, 사라진.”

주디는 철자법시간 내내 안절부절 못했다.

위이이이잉! 마침내 끝나는 종이 울렸다. 마치 웅웅거리는 호랑이 딱정벌레와 주디 무디의 달콤한 합창소리처럼 들렸다. 그리고 주디는 완전히 지쳐버렸다.

학교수업이 끝나고 나서, 프랭크와 라키 그리고 주디는 주디네 집 뒷뜰에 있는 파란 텐트안쪽으로 기어들어갔다. 스팅크를 기다리는 동안, 주디는 프랭크와 라키에게 귓속말로 계획을 말해 주었다.

“내가 스팅크를 제거할게,” 라키가 말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토디를 잘 지켜볼게,” 프랭크가 말했다. 마침내, 스팅크가 그들의 마스코트인 토디를 요구르트 통에 넣어가지고, 텐트 안으로 기어들어왔다.

“토디를 어디에 둘까?” 스팅크가 물었다.

“내 옆에 이쪽 구석자리에 뒀,” 프랭크가 말했다. “내가 토디를 잘 지킬게.”

“그리고 맨손으로 토디를 들어 올리지 마, 스팅크, 그러면, 토디가 너한테 딱 붙어버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주디가 스팅크에게 경고했다.

“누나, 형들, ‘토디(TOADY)’라는 단어에서 철자 두개를 바꾸면 ‘오늘(TODAY)’이란 단어가 된다는 거 알고 있었어?” 스팅크가 물었다.

“잘했구나, 스팅크,” 주디가 말했다. “근데 ‘스텅크(Stink)’에다가 철자 세 개를 더 붙이면 ‘얼간이 벌레(Stinkbug)’가 된다는 거 알고 있었어?”

스텅크는 그녀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다. “여기 좀 비좁은 거 같아,” 그가

불평했다.

“몸을 조금 더 웅크려봐, 스틱크. 사람들은 지구에서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문제꺼리가 생기는 거야.”

“아이고, 뭐라고?,” 스틱크가 말했다. “근데, 우린 왜 여기 있는 거야?”

“그냥,” 라키가 말했다. 그는 프랭크의 신발을 툭 찼고, 프랭크는 주디를 팔꿈치로 툭 찼다. 그리고 세 명 모두 킬킬거리고 웃기 시작했다.

“우리 머리를 짜내 보자,” 프랭크가 말했다. “알다시피, 이 클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 보자. 지금 이 장소가 굉장히 덥고 사람으로 가득 차 있긴 하지만 말이야.”

“여긴 너무 비좁아. 그리고 머리를 짜내기에 여기는 너무 더운 것 같아,” 스틱크가 말했다.

“지구 온난화 때문이야,” 주디가 말했다. “바로 이곳 버지니아에서 말이지.”

스티크가 강아지처럼 헐떡거렸다.

“스티크. 숨을 너무 많이 쉬지 마. 그러면 오존층을 파괴하게 돼,” 주디가 말했다. “남극 상공에는 이미 구멍이 뚫렸대!”

“형들이랑 누나는 오존층에 있어,” 스틱크는 말했다. 그는 텐트 밖으로 기어나갔다.

“완벽해!” 주디가 말했다. 주디와 라키 그리고 프랭크는 서로 하이파이브를 두 번씩 했다.

“그리고 토디를 데려가는 것도 잊어버렸나봐!” 라키가 말했다.

“오-늘은 운 좋은 날이야, 토-디. 오늘은 우리가 너랑 함께 세상을 구하는 것을 시작하는 날이야,” 주디가 말했다.

프랭크가 토디를 들어올렸다. 토디는 눈을 꿈뻑거렸다. “전혀 멸종위기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

“그건 아니고 네 손이 위험한 것 같은데,” 주디가 말했다. “토디를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그를 보내주는 게 싫은데,” 프랭크가 말했다.

“하지만 토드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 기억 안나? 만약 야생에서 잡아온 동물

이 있다면, 다시 놓아주라고 하셨잖아. 토디를 데려온 것도 지구에 상처를 입히는 거랑 같은 거야,” 주디가 설명했다.

“그냥 토디가 얼마나 좋아할지만 생각해,” 라키가 말했다.

그들은 토디를 주디의 집 뒤편에 있는 개울가로 데리고 갔다. “네가 보고 싶어 거야, 토디,” 주디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 가서 다른 두꺼비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어울려서 지낼 시간이야. 가서 지구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줘.” 셋을 세면서, 주디, 라키 그리고 프랭크는 조심스럽게 요구르트 통을 뒤집어서 토디가 나오도록 했다.

“잘 가, 두꺼비야!” 라키가 말했다.

“산성비를 조심 하렴!” 프랭크가 말했다. 토디는 한번 눈을 깜빡거렸다. 그리고 나서 ‘퐁딩!’ 토디는 물속으로 폴짝 들어가 버렸다. 물방울이 하나, 둘, 셋 일더니, 토디는 사라졌다.

“잘 보내줬어,” 프랭크가 말했다.

“좋은 일을 한 거야,” 라키가 말했다.

“정말 대단해!” 주디가 말했다.

라키와 프랭크는 집으로 갔다. 주디 무디, 그녀는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중이다. 두꺼비 오줌 클럽은 모든 두꺼비 종족들을 위해서는 작은 발걸음을 내디뎠지만, 인간 종족을 위해서는 아주 커다란 일을 한 것이다.



스팅크가 토디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는 데는 한 시간하고도 이십팔 분이 걸렸다. 아주 화가 나서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토디가 없어졌어?” 스팅크가 물었다. “아, 안 돼! 뱀한테 잡아먹혔으면 어찌지? 아니면 거대한 매가 삼켜버렸으면 어찌지? 토디를 텐트 안에 두고 온 내 잘못이야. 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니야,” 주디가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지구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토디를 풀어주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다.

만약 스팅크가 독침을 가진 개구리였다면, 그는 주디에게 독침을 놓았을 것이다. 만약 스팅크가 화산이었다면 그는 용암을 분출했을 텐데 말이다.

“그건 불공평해!” 스팅크가 불평했다. “토디는 내 애완용 동물이었어!”

“토디는 두꺼비 오줌 클럽 회원들 모두의 것이야.”

“하지만 내가 토디를 제일 많이 보살펴줬어,” 스팅크가 말했다. “토디를 놓아주면 세상이 어떻게 더 좋아진다는 거야? 내 생각엔 세상을 더 안 좋게 만들 것 같아.”

“스텅크, 네가 토디를 그 어항에 계속 가둬둔다면 넌 나쁜 녀석이 되는 거야” 주디가 말했다. “그 어항에 있으면 감옥에 갇힌 기분일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봐. 토디는 자유로워졌고 지금 거기에는 더 많은 두꺼비들이 있을 거야. 모르겠어?”

“난 누나가 내 두꺼비를 훔쳐간 것 말고는 하나도 모르겠어.”

때때로 스팅크는 고집 센 코뿔새처럼 막무가내일 때가 있다.

“이제 우리는 클럽의 마스코트조차도 없는 상태야,” 스팅크가 말했다.

주디는 급히 마우스를 안았다. “마우스가 우리의 새로운 마스코트가 되면 되겠다!”

“마우스 오줌 클럽이라고? 별로 맘에 안 들어,” 스팅크가 말했다. “알겠어? 토디가 없다면 두꺼비 오줌 클럽도 필요 없어.”

“우리한테 다른 두꺼비가 또 생길 거야, 스팅크. 약속할게.”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 스팅크가 말했다.

## 달의 여신 2호

그 다음날, 주디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나무에 올라갔다.

주디 무디, 그녀는 토디 때문에 가족들과 사이가 안 좋아졌다. 왜 그녀의 가족 모두는 그녀가 두꺼비 한 마리를 자유롭게 놔 주었다고 다들 그녀에게 화를 내는 것일까? 그녀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말이다.

스팅크는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녀를 올려다 보았다. “누나, 이건 페어플레이가 아니야! 엄마랑 아빠가 누나 곧바로 방으로 올라가래!”

“여기가 내 방이야,” 주디가 말했다. “나는 이제 여기 나무 위에서 살 거야. 줄리아 버터플라이 힐처럼 말이야.”

“그게 누구야?”

“이 년 동안 나무 위에서 살았던 여자아이야. 토드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 캘리포니아에서 사람들이 오래된 삼나무 몇 그루를 베어내려고 했어. 그래서 줄리아 버터플라이 힐이 나무들 중 하나에 올라가서 거기서 살았대. 그래서 사람들은 나무에 그 여자애가 올라가 있어서 그것을 베어내지 못했어. 그녀는 그 나무를 ‘달의 여신’이라고 이름까지 붙여주었대.”

“누나는 나무에서 살 수 없어, 안 그래?” 스팅크가 말했다.

“나, 군주 주디 무디, 너에게 명령하노라.”

“아이고, 놀고 있네,” 스팅크가 말했다.

“내가 이 나무에 산다면, 신문사 기자들이 찾아올 거야.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거야. 나도 이 나무를 달의 여신이라고 부를 거야.”

“‘달의 여신 같다’는 어때?” 스팅크가 말했다.

“푸-하-하,” 주디가 말했다. “스텅크, 너는 심부름꾼이 되어줘야겠어.”

“무슨 꾀이라고? 무슨 스파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

“중요한 역할이야,” 주디가 말했다. “가서 내 무전기를 좀 갖다 줘. 그건 아마 줄리아 버터플라이 힐의 태양열 충전식 휴대전화처럼 보일거야.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스텅크가 무전기를 가지고 왔다. 주디는 낮은 가지로 내려왔고 스팅크는 우유병 보관 상자위에 올라서서 그것을 주디에게 건네주었다.

“자 이제 나에게 손전등을 가져다 줘. 여긴 금방 어두워질 거야.”

스텅크가 가서 손전등을 가지고 왔다.

“이번엔 물 한 잔만 가져다 줄 수 있겠니?” 주디가 물었다.

“물? 물은 왜?” 스팅크가 물었다.

“목이 말라서 그래!”

“나 이제 안 할래,” 스팅크가 말했다.

“너한테 오십 센트 줄게.”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 있을 거야?” 스팅크가 자신이 얼마나 돈을 벌 것인지를 계산해보면서 물어보았다.

“줄리아 버터플라이 힐은 칠백 삼 십 팔 일 동안 나무 위에 살았어. 스팅크, 금방 또 나에게 물을 가져다주어야 할 거야. 그리고 렌즈콩도 가져다 줘. 줄리아 버터플라이 힐도 렌즈콩을 먹었대.”

“렌즈콩이라고! 누나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잖아!” 스팅크가 말했다. 그는 물 한 병을 가지고 왔다.

“오십 센트 줘야해,” 그가 말했다. “집에 렌즈콩이 다 떨어졌어. 사회시간에

엠펙이어스테이트 빌딩 만드는 거 할 때 다 써버렸다는 사실을 깜박 잊어버렸어.”

“아마도 리마콩을 좋아해야 할 것 같아,” 주디가 말했다. “아이, 싫은데.”

“라키가 왔어,” 스틱크가 말했다. “라키가 전화했을 때 누나가 나무위에서 살기로 했다고 말해 주었거든. 또 엄마랑 아빠가 누나가 방에 곧바로 들어가지 않은 것을 아시면 아마 큰일 날 것이라고도 말해 주었어.”

“여기가 내 방이야.”

“그럼 집안에 있는 누나 방 있잖아, 내가 써도 돼?”



라키는 뒤뜰로 들어가는 모퉁이를 돌아서 뛰어왔다. “무슨 일이야, 주디? 너 자체 말고, 도대체 또 무슨 일이야, 너 자신이 문제꺼리잖아?” 그는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주디는 웃지 않았다. 주디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형은 주디 누나를 주디 무디 군주라고 불러야 해,” 스틱크가 말했다.

“아, 알겠어,” 라키가 말했다. “나무위에 살았던 어떤 여자아이처럼 말이지. 비오면 어떻게 할 거야?”

“나뭇잎으로 비를 피할 거야,” 주디가 말했다.

“어두워지면 어쩔 건데?” 라키가 물었다.

“손전등이 있어,” 주디가 말했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들어봐?” 스틱크가 말했다. “첫째로 누나는 쓰레기에 미쳤어. 그리고 나서 이상한 딱정벌레한테 그러더라고. 결국은 나까지도 나무위에 올라오도록 부추기고 있어!”

“아, 그건 안 돼! 너까지 올라가겠다고?” 라키와 스틱크는 땅바닥을 구르며 킁킁거리었다.

“어떻게 하면 누나를 내려오게 할 수 있을까? 스틱크가 라키에게 물었다.

“토드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나무를 베어내려는 사람들은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밤에도 환한 불빛을 비춰서 줄리아 버터플라이 힐이 나무에서 내려오게

만들려고 했다,” 라키가 말했다.

“카세트 라디오 작전 개시!” 스팅크가 말했다.

그들은 주디가 나무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았다. 그녀는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는 “오 아름다운 광활한 하늘”이라는 노래를 흥얼거릴 뿐이었다.

“그 사람들이 줄리아에게 또 어떤 짓을 했어?” 스팅크가 물었다.

“소송,” 라키가 말했다.

“안 내려오면 소송 걸 거야!” 스팅크가 소리질렀다.

“뭇 때문에?” 주디가 말했다.

“나무위에 계속 있는 거하고, 엄마한테 꾸중 같은 거 들을 건데, 계속 피하고 있잖아.”

“꾸중 같은 거라니?” 주디가 말했다.

“우리 나무를 흔들어보자,” 라키가 말했다. 그들은 손을 나무에 대고 흔들어 보았다. 그러나 나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나무껍질 때문에 난 상처가 벌레가 무는 것보다 더 아파,” 스팅크가 살갓이 밀려 일어난 팔을 보여주면서 말했다. “거기, 누나, 병원에 가 봐야겠어. 진짜야. 가서 구급함 좀 갖고 와.”

“그런 식으로 잘들 해봐,” 주디 무디 군주가 말했다.

바로 그때, 마우스가 밖으로 나오더니 나무 위로 쏙살같이 올라가버렸다.

“동지가 되어줘서 고마워,” 주디가 말했다. “이제 이곳에 혼자 있지 않아도 되겠어.”

“훌륭해,” 스팅크가 말했다. “이제 마우스도 덩달아 내려오지 않겠군. 그리고 우리는 누나를 고양이까지 낚아챈 주디 무디라고 불러야 되겠어.”

“나는 여기 위에 있어야만 해,” 주디가 말했다. “모든 나무들을 위해서야. 그리고 올빼미와 날다람쥐도 그렇고 또 나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야. 인간들도 그렇고. 그리고 두꺼비도 위해서야.”

“누나를 저기 그냥 놔두자,” 스팅크가 말했다. “떨어지든 말든 누가 신경 쓰겠어? 거기서 아프기라도 한들 아무도 신경 안 쓸 거야.”

“아무리 주디 무디 군주라고 해도 저기서 영원히 살지는 못할 거야. 학교도 가야할 거고 말이야,” 라키가 말했다.

“줄리아 버터플라이 힐은 나무위에 있으면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대,” 주디가 되받아쳤다.

“우리가 누나를 아랑곳하지 않으면, 아마 내려올 거야,” 스팅크가 말했다.

“주디 무시하기 작전 개시!” 스팅크가 말했다.

스�팅크와 라키는 집안으로 들어갔다. 마우스는 가지에서 풀쩍 뛰어내리더니 그들을 따라 들어가 버렸다. “배신자!” 주디는 그녀의 고양이에게 소리쳤다.

나무에 앉아 있자니 약간 외로운 기분이 들었다. 주디는 줄리아 버터플라이 힐도 외로웠을까 궁금해졌다. 칠백 삼십 팔일은 긴 시간이었다. 주디는 아직 칠백 삼십 팔초도 버티지 못한 상태이다.

몇 분이 지나서, 스팅크와 라키가 바깥으로 뛰어나왔다. 스팅크는 공중에 편지 봉투 한 개를 흔들어 보였다.

“거기 위에 있는 누나,” 스팅크가 말했다. “주디 무디 군주님.”

“지금은 뭐야?” 주디가 물었다.

“크레이지 스트립 대회에서 너한테 편지를 보냈어!” 라키가 위쪽에 있는 그녀를 향해 소리 질렀다.

“정말?” 주디가 높고 안전한 나무 위의 자리에서 내려다보며 말했다. “봉투에서 꺼내서 나한테 읽어줘.”

“어림도 없지,” 스팅크가 말했다. “내려와서 직접 봐.”

“난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 스팅크,” 주디가 말했다.

“좋아, 내가 읽어 줄게,” 스팅크가 말했다. 그는 봉투를 뜯었다. 그는 접힌 편지를 펼쳤다. “주디 무디에게,” 스팅크가 읽어 내려갔다. “제가 볼 때 귀하의 맨 마지막 이름은 군주님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냥 읽기나 해!” 주디가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크레이지 스트립 나만의 반창고 콘테스트에서 우승자가 되셨

습니다.”

주디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달의 여신 2호’라고 이름붙인 나무에서 일어나, 먹이를 쫓는 표범처럼 잼싸게 내려왔다. “나한테 보여줘!” 그녀가 편지를 크게 읽었다.

주디 무디에게

무디양의 미소가 보고 싶어요.

부디 저희 쪽에 전화하셔서 진찰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스팅크와 라키는 고소하다는 듯이 웃어 제꼴다.

“스팅크!” 주디가 소리쳤다. “너 날 속였어. 이 편지는 크레이지 스트립 회사에서 온 게 아니잖아. 우리 치과주치의가 내 미소를 보고 싶어 한 것 때문에 나를 나무에서 내려오게 했다 이거지?”

“확실히 효과가 있었어,” 스팅크가 말했다.

“내가 웃어 줄 테니 잘 봐둬,” 주디가 시베리아 호랑이처럼 이빨을 드러내면서 말했다.

“이제 누나 방을 내가 쓰면 안 된다는 의미인가?” 스팅크가 물었다.

“너 죽을래!” 주디가 말했다.

## 반창고의 박쥐들

그 다음날 방과 후에, 주디와 스팅크, 그리고 라키가 버스에서 내렸을 때, 스팅크가 말했다, “집 앞 편지함까지 달리기 경주하자!” 그러나 주디는 스팅크를 따라 뛰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라키가 새로 개발한, 풍선껌이 사라지는 묘기를 보고 있었다. 그 때 스팅크가 길 건너편에서 소리치는 것이 들려왔다. “크레이지 스트립 콘테스트에서, 누나, 누나가 일 등 했어!” 그가 공중에 봉투 하나를 흔들며 했다.

“스탱크, 빠른 거짓말 또 하시는군!” 주디가 말했다. “난 그런 잔피에 다시는 넘어가지 않아.”

“봉투에 봐봐, 대회 우승자라고 적혀 있잖아. 바로 여기 굵은 빨간 글씨로 말이야. 알겠어?”

“만약 이게 속임수라면, 네가 나무에 올라가야 한다,” 주디가 길을 건너면서 말했다.

“이번에 속임수가 아닌 것 같은데,” 주디와 나란히 걸으면서 라키가 말했다. “주디가 무슨 상 탔는데?”

“롤러블레이드야!” 스팅크가 말했다.

“롤러블레이드는 편지봉투에 안 들어갈 텐데, 스팅크.”

“아마도 그림 이등상인가 보다,” 스팅크가 말했다. “아니면 선글라스를 닮을 수도 있고 말이야.”

“선글라스도 봉투 안에 들어가지 않아. 이리 줘봐.” 주디가 봉투를 획 낚아 채어 급하게 뜯어 보았다.

무디 양에게

축하드립니다! 크레이지 스트립 대회에 참가해 주신  
대 대한 감사의 표시인 참가증명서를 동봉하여 보내  
드리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맥스 도노반

크레이지 스트립 최고 경영자 드림

“증명서라고?” 주디가 소리쳤다. “내가 세상을 치유하는 그림을 그린다 해서 이게 전부야? 하찮은 증명서 하나로 말이야? 증명서는 롤러블레이드 발꿈치에도 못 미치잖아. 증명서로는 수백만 명의 발목을 장식하지도 못하잖아.”

“참가상은 이등상하고 같은 거야,” 라키가 말했다.

주디는 귀를 막았다. “그 증명서라는 말 다시는 꺼내지 마.”

“그래도 뭔가를 받기는 했잖아,” 스팅크가 말했다.

“그래, 맞아,” 라키도 맞장구를 쳤다. “스텅크는 참가상도 못 받았는 걸.”

그 말에 주디는 조금 힘이 났다. “그럼, 적어도 난 냉장고 위에 있는 나만의 명예의 전당에 붙일 게 생겼어.”

바로 그때 스팅크가 우편물을 떨어뜨렸다. 카탈로그와 편지들이 사방으로 흩날렸다. “도와줘!” 스팅크가 소리쳤다. 편지 봉투 하나가 카탈로그 몽치 안쪽에

서 빠져나와 집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위에 떨어졌다.

“잠깐만!” 스틱크가 그 봉투를 집어 들면서 말했다. “나한테도 편지가 왔어!”

“너도 참가상을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할 지 한번 보자,” 주디가 말했다.

“스티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다.

“스티크, 네가 그거 다 뜯어 열 때쯤이면 난 사학년이 되어 있겠다. 빨리 좀 꺼내서 읽어봐!”

스티크가 편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무디군에게

축하드립니다! 나만의 크레이지 스트립 반창고 콘테스트에서 우승하셨습니다. 귀하의 디자인, 반창고의 박쥐들이 10월의 크레이지 스트립으로 뽑혔습니다.

맥스 도노반

크레이지 스트립 최고 경영자 드림

“이 달의 크레이지 스트립이라고!” 스틱크는 깡충깡충 뛰면서 공중에 편지를 흔들며대면서 말했다. “내 그림이 이 달의 크레이지 스트립이다!”

“나도 좀 보자,” 주디가 직접 자기 눈으로 편지를 읽어보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녀의 조그맣고 비열한 동생 녀석이 이 달의 크레이지 스트립이 된 것이다!

“이 사람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편지를 흔들면서 주디가 울부짖었다. 그 사람들 정신이 잘못된 걸까? 뇌에다 반창고를 붙여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들은 박쥐가 톱 찢어진 작은 눈에 돼지처럼 납작한 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나 보지? 박쥐가 흡혈귀처럼 생긴 것도 모르고 말이야?”

“적어도 박쥐는 날아다니는 축구공처럼 생기지는 않았어,” 스팅크가 말했다.

“그것들이 세상을 치유한다는 것에 대해 알거나 하니?” 주디가 말했다.

“큰 귀 박쥐는 멸종위기에 있어,” 스팅크가 말했다. “크레이지 스트립에 박쥐를 그린 것은 세상을 구하는 거랑 같은 거야.”

“으이!” 주디가 말했다. 큰 귀 박쥐는 수백만 명의 발목을 장식한 적이 있었다. 반면에, 버지니아 주 전체는 동북쪽 해변 호랑이 딱정벌레를 밟아 죽이고 있고, 실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

“야! 롤러블레이드는 어떻게 됐어?” 라키가 물었다.

“편지에 보니까 나는 크레이지 스트립 선글라스를 받게 되는데,” 스팅크가 말했다.

“저게 내가 받는 상품인가 봐,” 라키가 현관에 있는 큰 상자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스팅크와 라키가 그 쪽으로 뛰어갔고 주디가 바로 그 뒤를 따랐다.

“크레이지 스트립 회사에서 온 거 맞아!” 스팅크가 말했다. “내 선글라스다!”

“코뿔소가 쓰는 선글라스인가 봐,” 주디가 말했다.

“아마 회사 측에서 잘못해서 너한테 실수로 롤러블레이드를 보낸 거 아냐,” 라키가 말했다.

“빨간색 줄무늬가 들어간 검은색 선글라스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은색...”

“스텝크! 빨리 상자를 열어 봐!” 주디가 말했다.

스텝크는 상자포장을 얼른 뜯어서 열었다. 그것은 코뿔소에게 맞는 선글라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크레이지 스트립 반창고였다. 그것도 엄청 많은 크레이지 스트립 반창고였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반창고들. 아마 평생 써도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열 상자는 되어 보였다!

“굉장하네!” 주디가 속삭이듯 말했다.

“우-와아!” 라키가 말했다. “난 이렇게 많은 크레이지 스트립 반창고를 본 적이 없어.”

“난 본 적 있어,” 스팅크가 ‘크레이지 스트립 반창고의 여왕’인 주디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하지만 이것들은 내-꺼-야. 내꺼.”

“네가 이거 그렸어?” 라키가 스팅크의 디자인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두 배로 멋지다야.”

“우와, 정말 너만의 진짜 크레이지 스트립 반창고다,” 주디가 말했다. 그녀는 부러워하는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다. 그녀의 얼굴이 질투심으로 새파래지고 있었다.

“형, 누나! 여기 내 선글라스가 있어,” 스팅크가 상자의 밑바닥을 살펴보면서 말했다. 선글라스가 반창고처럼 생겼어. 그는 그것을 쓰고 태양을 바라보았다. “선글라스 좋은데!” 그가 말했다.

“좋-겠다!” 주디가 말했다. “그 선글라스가 남극 대륙위에 있는 오존층에 뚫린 거대한 구멍으로부터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스�팅크는 자신만의 크레이지 스트립 반창고를 가지게 되었다! 그녀의 조그맣고 덜 떨어진 동생 녀석이 이제는 접착성 반창고의 발명자인 조세핀 덕슨처럼 유명해진 것이다. 남극 하늘에 엄청나게 거대하다는 구멍만 없었다면, 주디 무디, 그녀는 남극으로 가버렸을 지도 모른다.

“남극대륙에도 박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주디가 물었다.

“얼어버린 박쥐가 있겠지,” 스팅크가 말했다.

우-와-악! 주디는 오존층을 향해 머리를 들고서, 단 한 번의 길고 절규하는 원숭이같은 울음소리를 냈다.

## 작전명 '연필'

다음날 아침,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도 주디는 나무늘보처럼 게으른 나방이 된 기분으로 잠에서 깬다. 그녀는 정말 침대에서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다.

세상을 구한다는 것은 잘 되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정말 중요한 것을 하지 못했다. 그녀 자신만의 크레이지 스트립 반창고로 세상을 치유하는 것과 같은 것 말이다. 지금까지, 그녀는 네 개의 바나나 껍질과 한 개의 점심도시락 그리고 겨우 두꺼비 한 마리를 구해냈을 뿐이었다.

금요일 아침, 주디는 아무 말 없이 남기지 않고 아침을 다 먹었다. 그녀는 버릴 것 없는 점심도시락을 스스로 챙겼다. 그녀는 스틱크가 크레이지 스트립 반창고를 그의 발과 팔꿈치, 무릎과 얼굴에 온통 붙이고 있는데도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 크레이지 스트립 반창고를 붙이고 있으니깐 가려워,” 스틱크가 팔꿈치에 붙인 반창고를 떼어내면서 말했다. 주디는 더 이상 그것을 참아줄 수가 없었다.

“그게 만약 내 크레이지 스트립 반창고였다면,” 주디가 말했다, “난 가려워도 기분이 좋았을 거야. 난 한 번도 긁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난 절대 그것을 떼어내지 않았을 거야. 욕조에 들어가서도 말이지.”



학교에서, 주디는 한 번도 손을 들지 않았다. 그녀는 프랭크에게 쪽지를 건네지도 않았다. 그녀는 철자법 수업 시간 내내 뿔로통한 채 그녀의 심술쟁이 캐릭터가 그려진 연필만 물어뜯고 있었다.

주디 무디, 그녀는 연필을 물어뜯고 싶은 기분이었던 것이었다.

과학시간이 되었을 때, 토드 선생님은 손목시계를 풀어놓고서 말했다, “자 육십 초 정도 가만히 앉아 있어요. 내가 시간을 쥌 거예요.” 시간이 다 되었을 때, 토드 선생님은 말했다, “그 시간동안, 열대우림지역의 백 에이커의 땅에 있는 나무들이 사라졌어요. 그것은 칠십 개의 축구장 면적과도 같아요.”

“말도 안돼요!” 반 아이들이 모두 외쳤다.

“우리의 생활은 모두 열대우림지역에 의존하고 있어요,” 토드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입고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나무로 된 연필이나 고무지우개도 다 열대우림의 나무로 만든 거예요. 연필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삼나무의 구십팔 퍼센트가 열대우림지역에서 나는 거예요.”

주디는 그녀의 심술쟁이 캐릭터 연필을 깨무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녀는 그것을 바라보았다. 심술쟁이 얼굴이 더 심술궂게 보였다. 이 연필은 예전에는 나무였다. 열대우림에 사는 나무!

주디 무디, 그녀는 다시는 연필을 쓰지 못할 것 같았다. 심술쟁이 캐릭터 연필 한 개조차도 말이다.

“우리가 열대우림보호를 돕는다면 우리는 지구를 구하는데 일조하는 거랍니다,” 토드 선생님이 말했다.

갑자기, 주디에게 계획이 하나 떠올랐다. 완벽한 세상구하기 계획 말이다. 그녀가 해야만 하는 건 휴식시간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아이들 모두가 운동장으로 다들 뛰어나갈 때, 주디는 교실로 몰래 다시 들어왔다. 이것은 그녀에게 큰 기회였다. 각각의 책상 밑에는 연필을 두는 곳이 있었다. 주디는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책상에서 연필을 꺼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꽃병 안에 그것들을 숨겨두었다.

휴식시간이 끝나고 나서는 수학 시간이었다. “여러분들 학습장을 꺼내세요,” 토드 선생님이 말했다. “자 그럼 연필을 한번 써 볼까요.”

아이쿠! 주디는 생각했다.

“어머, 내 연필이 없어졌어요!”

“내 것도 없어!”

“내 연필은 바로 여기 있었는데!”

“토드 선생님! 토드 선생님! 누군가 우리 연필을 훔쳐갔어요!” 반 전체가 왁자지껄하게 떠들었다.

“좋아요, 누가 장난을 치고 있는 건가요?” 토드 선생님이 물었다.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중 누군가가 없어진 연필에 대해 뭔가 알고 있으요?”

주디는 머리를 숙이고 수학 문제를 푸는 척 했다. 브래드가 주디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없어진 연필에 대해 말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펜을 가지고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다.

“연필 도둑!” 브래드가 주디를 가리키면서 소리쳤다. “주디 무디가 우리 연필을 훔쳐갔어요!”

주디는 스물 한명의 3학년 연필 애호가 아이들의 눈이 그녀를 노려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주디?” 토드 선생님이 그녀의 책상 쪽으로 다가왔다. “없어진 연필에 대해 뭐 알고 있니?”

“네, 제가 그것들을 치웠어요,” 그녀는 고백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필을 이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연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미쳤군!” 브래드가 말했다.

“열대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주디가 말했다.

“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토드 선생님이 물었다.

“우린 우리 연필을 돌려주길 바랄 뿐이에요,” 레오가 말했다.

주디는 이 삼학년짜리 연필광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오존층 아래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칠십 개의 축구장 면적의 나무가 베어 넘어뜨려지고

있는데 걱정도 안 된단 말인가? 그녀는 나무가 베어져버려 황폐해진 곳으로 아이들 모두가 가버렸으면 하고 바랐다.

“저도 우리가 열대우림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프랭크가 말했다.

“저도 그래요,” 헤일리가 말했다.

“저도 그래요,” 라키가 말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는 연필을 계속 쓰지 않을 수는 없어요,” 랜디가 말했다. “우리는 뭔가를 써야 하고 지워야 하니까요. 수학시간처럼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수학 없이 세상을 구할 수 있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될지 몰라요,” 제시카 핀치가 말했다. “연필하나로 삼십오 마일 길이의 선을 그릴 수 있다고 해요. 우리 모두는 5학년까지 같은 연필을 죽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밀고자 제시카 핀치가 연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을까? 어쩌면 그녀는 애초부터 그런 ‘밀고자’는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나무 한 그루에서 연필이 몇 자루나 나오는 거야?” 주디가 물었다.

“하나도 안 돼,” 브래드가 말했다. “연필은 나무에서 자라나지 않아.”

“푸-하-하,” 주디가 말했다. “그러니깐 내 말은, 나무 한 그루로 연필을 아주 많이 만들 수 있다는 말이야. 진짜로 말이야.”

“나무 한 그루로 172,000개의 연필을 만들 수 있어!” 제시카 핀치가 말했다. “자연보호 감시원 너구리 릭이라는 어린이 자연잡지에서 읽었어.”

“우와! 나무 한 그루면 우리 학교 아이들이 쓰는 연필을 모두 만들 수 있겠다.”

“버지니아 주에서 쓰는 연필도 모두 만들 수 있겠어!”

“그럼 열대우림에 나무를 심을 수도 있겠다,” 주디가 말했다. “있잖아, 우리 버지니아 대어 초등학교를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연필만큼의 나무를 심는 거야.”

“전 세계의 모든 어린이들이 열대우림 보호를 위해 모금을 하는 거야,” 제시카가 반 아이들에게 말했다. “일 달러만 있으면 코스타리카 지역에 있는 어린이 열대우림지역에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 있어.”

“정말 일 달러밖에 안 든다면,” 주디가 말했다, “그럼 우리 모두 돈을 보내서 나무를 심도록 하면 되겠다. 그래, 우리 반 아이들 모두에게는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우와!” 모두가 말했다. “우리 그거 하자.”

“여러분? 돈은 어떻게 모금할 거죠?” 토드 선생님이 물었다.

“세차해서 돈을 벌면 어때요?” 루시가 말했다.

“물건을 팔아도 될 것 같은데,” 아담이 말했다. “쿠키 같은 거 말이에요!”

“제 언니는요 5학년 때 연극을 해서, 고래 살리기 모금운동을 했어요,” 제시카가 말했다. “그녀는 그 운동으로 기린상까지 받았어요.”

기린상이라고!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을 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다. 주디는 5학년까지 도저히 기다릴 수 없었다!

“잘하면 우린 마술 쇼를 상연할 수 있을 거야,” 라키가 말했다.

“아니면 우린 재활용할만한 것들을 엄청 많이 모을 수도 있고 말이야,” 프랭크가 말했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 돈을 모금하는 거지. 재활용 센터에 가면 음료수 병이나 우유병에 각각 오 센트씩 준대.”

“대단해!” 주디가 말했다.

“두 배로 멋져!” 라키가 말했다.

“병 모으기 운동이 아주 괜찮은 생각 같구나,” 토드 선생님이 말했다. “우리는 재활용과 동시에 모금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가 충분한 양의 병을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모두가 소리쳐 대답했다.

그렇게 정해졌다. 버지니아 대어 초등학교 3티 반은 병 모으기 운동을 시작했다. 학교 내에 있는 간이식당에서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3학년 아이들은 학교 안에서 우유병을 모으느라 오후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플라스틱 병을 유치원 교실과 선생님들이 점심식사를 하시는 방에서 찾아내어 쌓아두었다. 그들은 쓰레기통에서도 몇 개를 발견해서 구출해냈다.

3티 반은 가위개미 군대인양 열심히 일했다. “수확수업을 하지 못하게 만든 방법 아주 좋았어,” 프랭크가 속삭이며 말했다.

“네가 내 팔을 부러뜨려 깃스를 했던 것보다 이게 더 재미있어,” 제시카가 말했다.

“열대우림을 구하기 위해서는 빈 병이 엄청 더 있어야해,” 라키가 말했다.

“라키 말이 맞아요,” 토드 선생님이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서 주말에 빈 병을 몇 개나 수집할 수 있을지 알아보세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친구들에게도요.”

주디 무디는 아주 영리하게 머리가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다. 며칠밖에는 남지 않았는데 열대우림을 구하려면 아직 수백 개의 빈 병이 더 필요했다.

그녀는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주디 무디의 역사상 가장 좋은 기분이 들었다. 마침내 그녀는 세상을 구하는 길에 접어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그녀가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3티 반은 함께 세상을 구할 것이다. 하나의 생태계에서 그러하듯이 말이다!

군주 주디 무디, 그녀는 나비가 번데기에서 빠져나올 때 어떤 기분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깃털처럼 아주 가벼운 느낌이었다.

## 빈 병에 미치다

“병 모으러 가자,” 라키가 말했다. “학교 끝나고서.”

“내가 확신하는데 빈병수집이 동북쪽 해변 호랑이 딱정벌레를 발견하는 것 보다는 훨씬 쉬울 거야,” 주디가 말했다.

그들은 라키네 집 차고를 먼저 공격했다. 그리고 재활용되어 본 적이 없는 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우유병 보관 상자를 찾아냈다.

“대단해!” 주디가 말했다. “빈병이 스물일곱 개야!”

“근데 몽땅 다 납작해져 버렸네. 엄마가 항상 이렇게 찌그러뜨려 놓는다는 걸 깜빡했어.”

“괜찮아,” 주디가 말했다. “이미 찌그러진 걸 어찌겠어!”

주디네 집에서, 주디는 새의 모이통을 하려고 엄마가 모아두었던 우유병을 발견했다. 아빠는 빈 병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대신 나무 심는데 보태 쓰라고, 라키와 주디에게 각각 일 달러씩 주었다.

“감사합니다, 무디 아저씨!” 라키가 말했다.

주디는 일 달러 지폐에 그려져 있는 조지 워싱턴의 코에다가 쪽하고 입을 맞췄다.

“이제 다시 립스틱을 발라도 되는 거니?” 엄마가 물었다.

“그리고 나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거니?” 아빠가 물었다.

“네, 하지만 너무 많이는 안돼요,” 주디가 웃으면서 말했다.

“불공평해,” 스틱크가 말했다. “나도 일 달러나 뭐 그런 거 있으면 나무를 심을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거라,” 주디가 말했다.



다음 주 내내, 3티 반은 다용도로 쓰이는 교실에 빈 병을 산만큼 높이 쌓아 올렸다. 빈 병이 가득 든 가방들, 빈 병이 가득 든 상자들, 빈 병이 가득 든 큰 통들. “정말 훌륭한 팀워크였어요, 여러분,” 토드 선생님이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한 시간에 이백 오십만 개의 플라스틱 병이 버려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었나요? 3개월이 지나면, 지구를 한 바퀴 돌고도 남을 정도의 양이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겠어요!” 라키가 말했다. “빈 병들로 지구가 다 뒤덮이겠어요!”

“사람들은 빈 병을 재활용해야만 해요,” 제시카가 말했다. “우리 아빠한테는요, 플라스틱 병을 재활용해서 만든 재킷이 있어요. 제 양말도 빈 병으로 만들어졌고요.”

“말도 안 돼,” 주디가 말했다. 그녀는 몸을 돌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는 양말을 살펴보았다. 평범한 양말처럼 보였다. 전혀 플라스틱처럼 보이지 않았다.

“네, 맞아요,” 토드 선생님이 말했다. “모든 플라스틱은 재활용되어 장난감이나 코트를 거는 옷걸이, 그리고 액자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담은 쓰레기통조차도 만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모은 병이 몇 개나 될까요?” 제시카가 물었다.

“이걸 다 쌓아올려서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한번 봐요,” 브래드가 말했다. 3티 반은 수학수업 시간에 빈 병을 쌓고 또 쌓았다.

“이것을 병으로 만든 산이라고 불러야겠어요,” 라키가 말했다.

“정말 멋지다,” 프랭크가 말했다. “거대한 이글루같아요.”

각자 마지막 병을 쌓아올렸을 때, 토드 선생님이 말했다, “내일은 중요한 큰 행사가 있는 날이에요. 내일이 되면 여기 병이 몇 개나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텍시도 교장선생님이 우리가 모금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학교 전체에 발표하실 거예요. 자,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버스를 놓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도록 하세요.”

“내일이다!” 주디가 말했다.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그녀는 버지니아 대어 초등학교에서 열대우림에 얼마만큼의 나무를 심게 될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다.



## 윙크병에 걸리다

금요일 아침 주디와 라키가 스쿨버스에서 내렸을 때, 텍시도 교장선생님이 버스 문 밖에 서 있었다. “너희들, 요즘 어떻게 지내니?”

“괜찮은 거 같아요,” 주디가 말했다.

“오늘, 나무를 얼마만큼 심을 수 있을지 알게 돼요,” 라키가 말했다.

“그렇단다,” 교장선생님이 말했다. “너희 둘 모두 좋은 하루 보내렴.” 그리고 그녀는 윙크를 했다. 주디는 라키를 쳐다보았다. 라키는 주디를 쳐다보았다. 주디 무디의 3학년 생활을 통틀어서, 교장선생님이 누구한테 윙크하는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은 확실했다.

주디와 라키는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산처럼 쌓인 병을 다시 보려고 서둘러 다용도 교실에 들러보았다. 그러나 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3티 반 교실에 들어갔을 때, 토드 선생님이 문가에 서있었다. “정말 근사한 금요일 아니니?” 그가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윙크를 했다. 주디 무디의 3학년 생활을 통틀어서, 토드 선생님이 ‘근사한’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정말 확실한 것은, 그가 윙크하는 것은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그녀가 라키에게 말했다.

주디는 프랭크 옆에 앉았다. “있잖아? 무지 웃긴 일이 있어. 선생님들 모두 오늘 윈크하는 병에 걸리셨나봐.”

“윈크하는 병?”

“응, 있지, 선생님들이 윈크하면서 막 좋은 말씀을 하셔.”

“주디가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교실 안을 주욱 둘러보면서 그녀의 주위에 있는 아이들 모두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3학년 아이 한 명도 걸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3티 반의 모든 아이들이 모두 협력해서 병을 모았다.

“어린이 여러분,” 아이들의 주의를 끌기위해 전등을 깜박거리도록 하면서 토드 선생님이 말했다. “발표할 사항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주디 무디는 아침 발표가 있다고 하는 말에 긴장해서 안절부절 못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라면 멕시코산 춤추는 콩이 더 잘할 것 같았다.

“그리고 이제,” 스피커를 통해서 텍시도 교장선생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러분이 기다리던 순간이에요...” 주디 무디는 등을 꼳꼳하게 펴고 앉아서 쫄긋하고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토드 선생님이 담임이신, 3티 반이 열대우림을 위한 모금운동으로 이번 주에 빈 병을 수집했어요. 버지니아 대어 초등학교를 대표해서 이 돈이 코스타리카의 어린이 열대우림지역에 나무를 심는데 쓰이게 될 거예요. 3티 반 어린이 여러분 덕분에, 버지니아 대어 초등학교에서는 1,961개의 병을 수집했어요. 이를 통해 열대우림을 구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나무를 아흔 여덟 그루 심을 수 있게 되었어요.”

갑자기 주디는 아빠한테서 받은 돈이 생각났다. 2달러가 더 있으면 나무를 두 그루 더 심을 수 있다. 그럼 백 그루다! 3티 반 아이들이 기빠서 펄쩍펄쩍 뛰고, 손뼉치고, 환호하고 올빼미처럼 소리를 질러댔다.

“오후 2시 30분에 특별 조회를 가져서 3학년 어린이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 조회를 통해 학교의 전체 어린이들이 3학년 어린이들에게 손뼉을 쳐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거

예요.”

“오늘 점심은 간이식당에서 하세요,” 텍시도 교장선생님은 계속 말했다. “학교 축제 입장권이 월요일에 판매될 거예요. 그리고 주디 무디가 교무실에 알려 줄 수 있겠죠?”

“흥, 주디 이제 골치 아프게 생겼군,” 제시카 핀치가 말했다.

“아무 일도 문제될 건 없어요,” 토드 선생님이 말했다. “주디는 오늘 조회에서 우리 반을 대표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연필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 것은 주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대우림에 나무를 심게 되었고요. 주디, 교무실로 내려가서 텍시도 교장선생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알아보도록 하세요.”

주디는 버지니아 대어 초등학교의 커다란 초록색 강당을 가로질러 뛰어가지 않고서 최대한 빠른 종종걸음으로 교무실로 걸어갔다. 3학년 교실 밖에 붙어있는 두꺼운 종지로 만들어진 가면들이 그녀를 향해 윈크하는 듯 했다. 2학년 아이들이 그린 자화상들이 싱긋 웃고 있었다. 그리고 1학년교실 벽에 붙은 해바라기가 자랑스러운 듯 어깨를 쭉 펴고 서 있었다.

텍시도 교장선생님은 주디를 다용도 교실로 데리고 갔다. 교장선생님은 주디에게 첫 번째 줄의 앞을 자리를 일러주고 언제 무대 위로 나올지를 말해주었다.

“내가 무대 위에서 네 이름을 부르게 나서, 너희 반을 위해 뭔가를 줄 거야. 너는 그것을 받으면 돼, 그리고 나서 무대를 가로질러 걸어 내려가서 반 아이들한테 돌아가면 된단다.”

“증명서 같은 건가요?” 주디가 물었다.

“깜짝 놀랄 일이야! 재미있기도 할 테고. 좀 있으면 알게 돼,” 교장선생님이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윈크를 했다. 그럼 도대체 이 모든 윈크는 무엇이란 말인가, 주디는 생각했다.

오후 2시 25분이 되자, 토드 선생님 반 아이들은 서둘러 다용도 교실로 갔다. 주디는 맨 앞줄의 그녀의 자리에 앉았다.

그 교실 안은 어두웠다. 무대에 드리워져 있던 커튼이 올라갔다. 조명 하나가 텍시도 교장선생님을 비추고 있었다. 모든 학생들이 박수를 쳤다.

“어린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3티 반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를 보여주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코스타리카에 있는 어린이 열대우림에 나무를 심기위한 모금운동을 하면서, 아주 훌륭한 팀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버지니아 대어 초등학교라는 이름으로 일백 그루의 나무가 심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가렛 미드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걱정하는 작은 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세상을 바꾸도록 도움을 준데 대해 우리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3티 반에 전하는 바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환호하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군립 공원 부서에서 나오신 삼림감시원이신 파이너씨가 특별 손님으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 부서에서는, 열대우림에 있는 나무들이 기부되듯이, 버지니아 대어 초등학교에 삼나무 한 그루를 기부하셨습니다. 조치가 끝나고 난 직후, 삼림감시원 파이너씨는 토드 선생님의 반 아이들을 도와 우리 학교 앞에 그 나무를 심게 됩니다.”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곳에 왔습니다. 그 반의 모든 학생들에게 티셔츠와 스크리밍 미미즈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제공하는 레인포레스트 미스트 아이스크림 무료교환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텍시도 교장선생님은 공중에 봉투 하나를 흔들어 보였다. 그리고 티셔츠 한 개를 꺼내 들었다. 티셔츠에는 빈 병 수집을 통해 심어진 나무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밑에 ‘플라스틱이 나무로’라고 적혀있었다.

주디의 반 아이들은 팔짝팔짝 뛰면서 환호하는 소리를 질러댔다. 티셔츠에 글씨가 적혀 있어! 그리고 공짜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는 상품권도 있어! 세상을 구하는 것은 주디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일이었다.

“지구 전체에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 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를 무대 위로 초대합니다. 주디 무디!”

주디는 뒤돌아 토드 선생님을 쳐다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무대로 올라가라는 신호를 해보였다.

주디 무디는 밝은 조명이 비치는 곳에 서서는, 눈을 똑바로 뜨려고 애썼다. 그녀는 열대우림을 구하기 위해 나무를 심는 것을 도와준 같은 반 아이들 모두

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손을 들어 흔들며 원숭이 소리와 같은 환호성을 질렀다.

텍시도 교장선생님이 계속해서 말했다. “이 상은 보통 5학년 학생이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오늘 저는 3학년 어린이 여러분 모두가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이라고! 주디는 자세를 더 똑바로 했다.

3티 반은 우리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더 큰 지역사회인 우리의 지구, 우리의 세상에 도움을 주는데 기여했습니다. 주디 무디와 3티 반 어린이 여러분, 제가 남들과 다른 정말 훌륭한 일을 한 사람에게 주는 상인 기린상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린상이라고! 주디는 그녀의 귀를 믿을 수가 없었다. 그녀의 최고 성능 좋은 3학년 아이의 귀조차도 말이다. 5학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기린상을 받고 싶어 했다. 주디 무디, 그녀는 3학년에 기린상을 받는 것이다!

텍시도 교장선생님은 금색의 기린모양의 트로피를 그녀에게 수여했다. “3티 반에 큰 박수를 보내주세요!”

그때, 기린상을 수상한 3티 반의 모든 아이들이 빈병과 나무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무대로 나와서, 다함께 손을 잡고 사진을 찍었다. 카메라가 찰칵했고 플래시가 터졌다.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빠가 있었다!

아빠는 주디에게로 와서 그녀를 안아주었다.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왔단다,” 아빠가 말했다. “방과 후에 빈 병을 재활용센터에 신고 가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멋진 생각이네요!” 주디가 말했다.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빠가 말했다. “너희들 모두 자랑스럽다.”

주디는 미소를 지었다. 시베리아 호랑이를 닮은 미소가 아니라 진짜 미소였다. 치과 주치의 선생님이 정말 보고 싶어하는 그런 미소 말이다.

3티 반은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았다. 일백 그루의 새로운 나무가 심어지게 될 것이다. 열대우림을 치유하는 반창고처럼 말이다. 그리고 주디 무디, 그녀는 세상을 구하는데 조그만 역할을 해냈다.

주디는 3티 반 아이들의 한 가운데 섰다. 그녀는 트로피를 높이 들었고, 진

짜 기린이라도 된 것처럼 그녀의 목을 쭈욱 내뻗었다.

